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Normative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nsitivity

Shin, Su-Kyung (Namb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Hyun-Kyung¹⁾ (Mokpo Catholic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normative behavior,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9 children aged 5 years old who were enrolled at 12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G city.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24 classroom teachers these children.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normative behavior.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nsitivity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normative behavior. It is thought that by increasing level of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s perceived by children, as well as sensitivity, may serve as a basis to suggest ways to promote the children's normative behavior.

Key Words :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normative behavior, children's sensitivity

1) Corresponding Author: Lee, Hyun-kyung, Associate Professor, Mokpo Catholic University, 697 Youngsan-Ro, Mokpo-Si, Jeonranam-Do, Korea, 58607 / E-mail: misolhk@mcu.ac.kr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 간의 관계 연구: 유아 민감성의 매개효과

신수경 (남부대학교, 부교수)
이현경¹⁾ (목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민감성 요인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12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 5세 유아 240명의 담임교사 2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된 자료 중 총 229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둘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민감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을 높임으로써 유아의 배려행동의 하나인 규범적 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유아의 규범적 행동, 유아의 민감성

1) 교신저자: 이현경, 부교수, (58607)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 E-mail: misolhk@mcu.ac.kr
논문투고일자: 2020. 2. 21 / 심사일자: 2020. 2. 22 / 게재확정일자: 2020. 3. 9

I. 서론

자녀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유아-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 사실, 감정, 태도까지를 전달해 주는 정서적 과정이다(Kim & Park, 2011). 유아-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유아의 성장과 함께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의 태도에 따라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기초가 될 수 있다(Kim & Ahn, 2009).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부모가 개방, 감정이입, 지지, 긍정, 동등성 등의 자세를 갖고 경청의 노력이 필요함을 Foley(1974)는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조력하는데 있어서 단순 문제해결이 아닌 자녀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까지 성장·발달시킬 수 있는 촉진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Ko, 2010). 촉진적 의사소통은 단순히 개인의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잠재능력까지도 성장 발달시키려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개인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 탐색하여 문제 상황을 규명하고 명료화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안내한다(Ko, 2010)

상담이론학자 Rogers(1961)에 의하면 촉진적 의사소통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소를 증대시키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자녀의 인성 및 적응행동(Kim & Chung, 2007), 정서지능(Lee & Kim, 2001) 및 정서조절(Kim, 2006), 또래관계기술(Baek, 2005; Cho, 2008)등 사회적 능력 발달에 핵심적 요소(Park, 2015)가 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부모 간의 의사소통 유형 중 긍정적인 유형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은 일반화된 상태이다.

한편, 사회적 능력 발달의 핵심 요소인 유아-부모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 인식과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비롯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Jung & Jung, 2007)을 키워준다. 자기조절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외부 통제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게 한다(Kim & Park, 2011). 뿐만 아니라,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정서조절 능력(Baek, 2007)을 비롯한 사회적 반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규범적 행동이란 심리 내·외적 자극 등의 생물체 반응(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Ma(2018)는 사회적 반응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정서적 예측 변인이며, 다른 유아와 사회적 규칙이나 또래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이자 대인관계능력인 사회적 반응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제시하고 있어 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관해 Gang(2014)은 요구하기, 의무 다하기, 강제적 의무 따르기, 적절함 알기, 권면하기, 강하게 요구하기, 기대하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Han(2013)은 배려교육 결과 이타적 성향과 조망수용능력, 자기조절능력, 배려행동이 향상되었다고 여러 연구들(Park, 2015; Seo, Huh, & Park, 2015; Sohn, 2017)을 토대로 규범적 행동을 배려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 하나의 배려행위로 구분하였다. 유아들의 배려행동에 관해 Lim, Jung, & Bae(2019)는 배려를 하는 유아와 배려를 받는 유아 간 친밀함 또는 배려를 받는 유아의 성향 및 민감성에 따라서 유아들의 배려행동이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2015)은 규범적 행동을 포함한 배려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배려가 필요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민감성이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민감성이란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을 의미하는데, Lee & Choi(2008)는 유아의 민감성을 교사나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며, 다른 이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친구들이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유아-부모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Lee(2010)는 개인적 요인인 민감성은 행동억제에 영향을 받으며, 민감성의 차이는 정서양식의 차이(Davidson, 2000)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어 민감성이 유아의 행동적 반응의 조절능력을 요하는 규범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민감성은 유아-부모간의 촉진적 의사소통 및 규범적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자녀의 인성 및 적응행동(Kim & Chung, 2007), 정서지능(Lee & Kim, 2001), 또래관계기술(Baek, 2005; Cho, 2008), 자기조절력(Kim & Park, 2011; Park, 2015)의 변인 등을 중심으로 선행되어져 왔을 뿐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기질인 민감성이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선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Lee(2010)와 Kim(2015)의 유아 배려행동 척도의 개발 및 유아의 자기조절과 리더십과의 관계 연구에서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이 규범적 행동과 관계가 있는 자기조절 능력과의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Lim et al.(2019)은 유아들의 배려행동이 성인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예측하기 어려

은 다양한 변수를 가진 유아에게 배려행동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변인이자 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이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유아 민감성의 개인적 변인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개인적 변인을 고려한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 민감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총 12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만 5세 2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만 5세 유아 240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24명에게 교사용 설문지를 총 240부 배부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2인의 연구자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만 5세 담당 담임교사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으며, 응답지 총 24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응답지 11부(4.58%)를 제외한 229부(95.42%)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유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유아들의 월령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t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아 127명(53.9%), 여아 102명(46.1%)로 여아보다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월령은 남아의 경우 50.64개월 여아의 경우 53.13개월로 $t=1.714(p>.05)$ 로 분석되어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평균 월령은 51.86개월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구분	항목	빈도	평균 월령	<i>t</i>
성별	남아	127(53.9%)	50.64	1.714
	여아	102(46.1%)	53.13	
합계		229(100%)	51.86	

2. 연구도구

가. 부모-유아 의사소통

부모와 유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nes &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Sim & Kim(1997)이 유아에 맞게 수정·보완한 의사소통 척도를 Ko(2010)가 의사소통의 기능과 기술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검사는 의사소통의 기능과 기술에 따라 촉진적, 개방적, 일방적 의사소통 등 3개 하위 영역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부모-유아 관계에서 사실이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 공감, 반영적 경청, 지지적 발언 등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5문항의 타당도를 검사한 결과 공통성이 .500이하로 나타난 ‘엄마와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의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만을 촉진적 의사소통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유아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자는 유아이며,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 조금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 중 하나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촉진적 의사소통 영역의 총점 분포는 각 영역마다 4점에서 2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척도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검사의 단계는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 준 후 1단계 질문에서 ‘예’, ‘아니오’를 묻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예를 들어 유아가 ‘예’를 했다면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 인지 질문하였다. 부모-유아 간 촉진적 의사소통의 문항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유아 의사소통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 수	신뢰도
촉진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 부모님은 내게 말을 한 다음 꼭 나의 대답을 들어본다. · 부모님은 가능하면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말을 무조건 믿어준다. 	4	.751

나. 유아 규범적 행동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ipman(2003)이 제시하고 Lee(2008)와 Han(2013)이 배려적 사고의 유형별 특성을 근거로 수정하여 제작한 교사용 관찰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행동, 능동적 행동, 규범적 행동, 가치 부여적 행동의 총 4개 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행동 요인 관련 내용의 총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6개 문항의 타당도를 검사한 결과, 공통성이 .500이상으로 6개 문항 모두 나타나 모두 사용하였다.

교사는 평소 유아를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언어나 행동적 표현들과 일치하는 정도를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배려행동 점수를 합산한 결과 6-30점으로 점수화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규범적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 규범적 행동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유아 규범적 행동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 수	신뢰도
규범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들의 물건을 소중히 다룬다.(예: 또래가 만든 작품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빌린 물건 잘 쓰고 갖다 주기, 교구 사용 후 제자리에 바르게 놓기) · 교구나 교재를 보호하고 간수하여 잘 보존한다. (예: 쓰고 남은 재료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담아두기. 찢어진 책을 직접 테이프로 붙이거나 교사에게 부탁하기) · 주어진 바를 적절하게 실천한다. (예: 정해진 당번 역할을 충실히 하기, 차례 지키기, 장난감 정리정돈) · 제시된 규칙을 준수한다. (예: 또래 때리지 않기, 어린이집 장난감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기, 실내에서 뛰지 않고 걷기) · 상황에 적합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한다. (예: 상황에 맞게 작은 소리 또는 큰 소리로 말하기, 또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라고 말하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식사시간에 돌아다니며 먹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 최상 또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몰두한다. 	6	.899

다. 유아 민감성

본 연구에서는 유아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Lee & Choi(2008)의 교사용 리더십 평가척도와 Jang & Hwang(2009), Kim(2012)의 유아용 리더십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Lee(2016)의 유아리더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감성, 사교성, 주도성, 자발적 몰입 등 4가지 하위요소,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요소 중 민감성 요인의 내용인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4문항의 타당도를 검사한 결과 공통성이 .500이하로 나타난 ‘다른 교사나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임’의 문항을 제외한 3개 문항만을 민감성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교사는 평소에 관찰한 유아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1점에서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유아의 민감성 점수를 합산한 결과는 3-15점으로 점수화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 민감성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유아리더십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 수	신뢰도
민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잘 도움. · 친구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친구들이 함께 놀고 싶어 함. 	3	.813

라. 타당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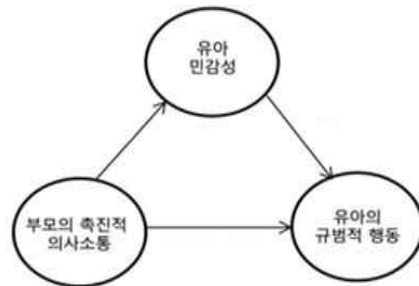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에서 직각회전기법인 베리맥스(Varimax)과 KMO Bartlett 검정으로 요인별 판별 타당성을 탐색하였고, 고유값은 1.000 이상과 요인 적재량은 .500, 공통성은 .500 이상인 것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축진적 의사소통의 경우 1개, 규범적 행동의 경우 1개 항목을 제거한 후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누적 분산값은 66.834, KMO값은 .862, 공통성 값은 .500 이상으로 기준치에 부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기준치가 모두 허용되어 설문 응답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타당도 분석 결과

구분	1	2	3	공통성
규범적행동4	.856	.220	.287	.735
규범적행동1	.848	.173	.290	.720
규범적행동2	.841	.217	.293	.710
규범적행동5	.803	.148	.309	.645
규범적행동3	.802	.187	.407	.656
규범적행동6	.714	.105	.584	.626
촉진적의사소통1	.116	.808	.188	.681
촉진적의사소통3	.209	.770	-.026	.608
촉진적의사소통2	.310	.740	.099	.573
촉진적의사소통4	.067	.702	.013	.500
민감성3	.469	.159	.867	.777
민감성4	.189	.005	.836	.719
민감성2	.536	.145	.825	.738
고유값	5.137	2.105	1.447	KMO=.862
분산	39.514	16.190	11.131	카이제곱=1393.579
누적 분산	39.514	55.704	66.834	df=78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유아가 인식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 민감성의 부분 매개효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유아의 규범적 행동의 직접영향을 밝힐 직접경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 민감성을 매개한 간접경로를 밝히고자 한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한 동질성 확보를 위해 빈도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 산출, 주성분 분석, 직각회전기법인 베리맥스(Varimax)기법 활용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민감성, 규범적 행동 등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유아의 규범적 행동, 유아의 민감성 등 연구변수 간의 영향력 및 경로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 유아의 규범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 변수인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 유아의 규범적 행동 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민감성($r=.215$, $p<.01$)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r=.251$, $p<.001$)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민감성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r=.592$, $p<.01$)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촉진적 의사소통과 민감성, 규범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촉진적 의사소통	민감성	규범적 행동
촉진적 의사소통	1.000	-	-
민감성	.215**	1.000	-
규범적 행동	.251***	.592**	1.000
<i>M(SD)</i>	3.425(.550)	3.576(.770)	3.888(.759)

** $p<.01$, *** $p<.001$

2. 촉진적 의사소통이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표 7>과 같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종속변수인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R^2=.059$ 로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5.9%로 나타나고 있고,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 $F=15.169(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 1의 분석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beta=.251$)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표 7> 촉진적 의사소통이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99	.309		8.735***		
촉진적 의사소통	.347	.089	.251	3.89***	15.169***	.059

*** $p<.001$

3. 촉진적 의사소통과 규범적 행동의 관계에서 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표 8>과 같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종속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R^2=.042$ 로 민감성에 미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4.2%로 나타나고 있고,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 $F=10.853(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 2의 분석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beta=.215$)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아의 민감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민감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표 8> 촉진적 의사소통이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50	.316		8.062***		
민감성	.300	.091	.215	3.294**	10.853**	.042

* $p < .01$, *** $p < .001$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3은 <표 9>와 같이 촉진적 의사소통과 매개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을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들 요인들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이 포함된 모형 3은 $R^2 = .361$ 로 모형1($R^2 = .059$)보다 모형의 설명력이 $\Delta R^2 = .302$ 이 상승되어 36.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 $F = 64.922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 1.549로 나타났으며,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beta = .130, p < .05$)과 유아의 민감성($\beta = .568, p < .001$)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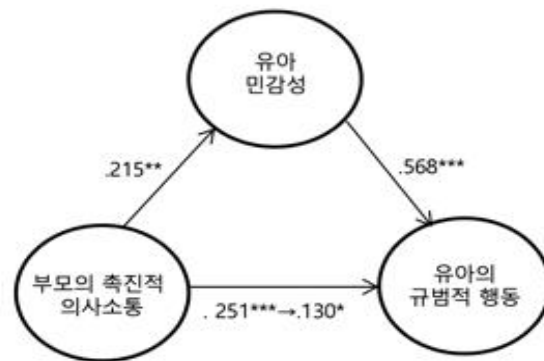
<표 9> 촉진적 의사소통과 민감성이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81	.289		4.431***		
촉진적 의사소통	.180	.075	.130	2.393*	64.922***	.361
민감성	.556	.054	.568	10.368***		

* $p < .05$, *** $p < .001$

이와 같이 본 매개회귀분석 검증 결과, 1단계인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2단계인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민감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따라서 매개효과(간접효과) 검증방법에 의해서 유아의 민감성은 유아가 지

각한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촉진적 의사소통, 유아 민감성의 직접영향을 밝힐 직접경로,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의 관계에서 유아의 민감성을 매개한 간접경로를 밝힌 부분매개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민감성의 매개효과

매개변수인 유아 민감성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방법에 의해 분석된 z값의 결과 $z > 1.96$ 을 만족 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유아 민감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유아 민감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의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유아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에서 매개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을 통하여 규범적 행동 이르는 경로의 유의성은 Sobel 검정의 결과 $z = 3.140 (p < .001)$ 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간접효과 유의성(Sobel 검증) 분석결과

경로	z	p
촉진적의사소통 → 민감성 → 규범적행동	3.140	.000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영향 및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유아 민감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beta=.25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온정적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인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비롯한 사회적 적응 및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Bae, 2010; Jeon, 2005; Kim, 2006; Kim & Chung, 2007; Kim & Park, 2011; Park, 2015) 결과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심리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규범적 행동과 자신의 목적과 상반된 갈등상황에 직면 시 외적 통제 없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인정되지 않는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Zimmerman, 2005)을 내포한다는 자기조절력의 정의가 부분적으로 일치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영향 미친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Kim & Hwang(2005)은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 신경증적 문제행동, 반사회적/주의집중 문제행동, 일상적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촉진적일 때 남아의 경우 대인적응성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Lee & Kim(2012)의 연구결과는 또래 관계에서 다른 아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일종의 공격적인 특성과 대인적응성이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대인적응성이 낮은 아동의 경우 또래관계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한 Do(1996)의 견해에 비추어 설명되어 질 수 있어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 자신이 온화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수용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 사회가 정한 도리와 범절인 규범을 행동으로 실천 가능하게 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유아가 규범적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온정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살핌과 지원 등의 인적환경(Kim, 2013)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모 역할수행에 있어, 유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고, 유아의 내면적 세계의 애해와 탐색을 통한 문제 상황의 규명하고 명료화시키는 촉진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beta=.215,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아의 민감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매개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을 포함시켜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beta=.130, p<.05$)과 유아의 민감성($\beta=.564, p<.001$)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은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효과(간접효과) 검증방법에 의해서 유아의 민감성은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 유아의 민감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에서 매개변수인 유아의 민감성을 통하여 유아의 규범적 행동 이르는 경로의 유의성은 Sobel 검정의 결과 $z=3.140, (p<.001)$ 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민감성은 행동억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Lee(201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민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범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러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민감성이 요구된다고 제시한 Kim(2015)의 연구결과와 타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Lim et al.(2019)의 연구결과는 유아의 민감성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규범적 행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자기조절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Aronfreed, 1976; Bandura, 1977; Kim, 2003; Kim & Park, 2011; Nam, 2004)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의 질 즉 유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기에 바람직한 부모와의 관계를 맺은 유아의 경우, 부모의 지시와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조절 행동을 습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에 있어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규범적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im et al.(2019)은 유아교사들의 경우 외적인 보상과 칭찬에 초점을 두어 유아의 배려행동을 변화·증가시킬 수 있으나, 지속적·진정성 있는 배려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는 교사의 어려움을 보고함과 동시에 평소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여 지켜보는 유아의 경우 배려가 필요한 상황을 민감하게 발견하고 배려행동을 실천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유아의 배려행동의 주체될 수 있는 민감성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민감성이 유아의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아의 규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 유아의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민감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민감성이 외생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민감성의 개인적 변인을 포함한 유아와 부모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배려행동과 관련한 규범적 행동 증진 내용이 포함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능력을 높여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의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규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개인변인인 민감성을 매개요인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에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규범적 행동을 강화하는데 있어 개인적 변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피력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결과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에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 24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민감성, 규범적 행동을 조사한 결과로써 전체 유아들을 표집한 결과가 아니므로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역, 다양한 특성의 개인적 변인을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표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의사소통과 배려행동의 하위요인 중 촉진적 의사소통과 규범적 행동만을 중심으로 유아의 다양한 개인적 변인 중 민감성 요인만을 중심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에 포함된 모든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의 경우 현 시대의 유아들이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에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된 바 있으나, 개발된 지 오래된 연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인 점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민감성 측정도구는 측정 문항이 매우 적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현 사회 부모-유아 간 촉진적 의사소통을 측

정하는 데 보다 더 적합한 문항에 대한 연구도구 개발과 개발된 연구도구를 사용한 유아-부모 의사소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ronfreed, J. (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i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 Bae, M. J. (2010).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Baek, S. Y. (2007). *The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children's adaptation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aek, Y. M. (2005). *The relations between father and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nes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US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o, K. E. (2008).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family rules and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their peer relational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Daviidson, R. J. (2000). Affective style,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Brain mechanisms and plasticity. *American Psychologist*, 55, 1196-1214. doi:10.1037//0003-066x.55.11.1196
- Do, H. S. (1996). The relationship of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o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17(2), 33-45.
- Foley, V. D. (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ory*. New York, NY: Grune & Stratton.
- Gang, H. G. (2014). *The effects of discussion activities through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s ability to carry out caring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Han, M. S.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home environment which affect caring behavior of early childhood: focusing on family strongness, mother-child interaction, stimulated home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Y. S., & Hwang, Y. S. (2009).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 intelligence and leadership in half-day program and full-day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3(4), 187-205.
- Jeon, J. M. (2005). *Social competenc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H., & Jung, S. H. (2007).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5(7), 93-103.
- Kim, H. G. (2013). *The influence of raising-plant activity reflecting children's interest on children's caring thinking and nature friendly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L. (2015). *Development of caring behaviors scale for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H., & Ahn, Y. I. (2009).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st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the child's peer competence. *The Society for Open Parent Education: SOPE*, 1(1), 101-118.
- Kim, M. A. (2006).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family system and personality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M. S. (2006).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m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O. H. (2003).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buk-do, Korea.
- Kim, Y. H., & Chung, H. J. (2007). Th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4), 671-679.
- Kim, Y. S., & Park, J.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32(2), 21-34.
- Kim, Y., & Hwang, H. J. (2005). Influence of the promo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to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0(4), 69-88.
- Ko, H. S. (2010). *A Study on the quality of peer conflict resolution according to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variable of sib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Korea.

- Lee, C. H. (2008). *Enhancing young children's caring thinking through a community of philosophical inqui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H., & Choi, I. S. (2008). The development of a leadership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23-37.
- Lee, S. H., & Kim, J. M. (2012). Relations between parents' communication styl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age and gender.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321-340.
- Lee, Y. H., & Kim, H. J. (2001).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and confidence between mother and child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8(1), 103-119.
- Lee,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4(3), 149-174.
- Lee, Y. S. (2016).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ego-resilience,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 children's leader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Korea.
- Lim, J. R., Jung, H. J., & Bae, J. H. (2019).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s of and suggestions for enhancing children's caring behavio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3(1), 79-108.
- Lipman, M. (2003). *Thinking in education* (2nd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 J. S. (2018).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empathic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on car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418-425. doi:10.5762/KAIS.2018.19.5.418
- Nam, J.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efficacy,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ce's self-regul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tdict.korean.go.kr>
- Park, I. S. (2015). The effects of child care activities using fairy tale on emotional regulation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Korean Society for Study of Child Education & Care*, 15(4), 45-66.

- Park, J. A. (2015). *The effect of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family rules perceived by children on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Y. T., & Lee, H. J. (2011). Influence of maternal communication ability on child's self-control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4), 341-361.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Sim, S. K., & Kim, N. R. (1997). The relationship of father-child communication to young children's self-concep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7(2), 139-161.
- Seo, H., Huh, H. Y., & Park, M. J. (2015). The effects of care education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s social perspective-taking abilitie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4(2), 275-311.
- Sohn, B. Y. (2017). The effects of caring education using learning together model on caring behavior and self-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9), 195-222.
- Zimmerman, B. J. (2005).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13-39). Burlington, MA: Elsevier Academic Press.